

임성재 선봉장... 제주출신 골퍼들 총출동

제주Utd, 인천 꺾고 "홈 2연승 가자!"

내일 개막 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개막전 우승자 고군택 등 올 시즌 최다 8명 출격

제주출신 골퍼들이 총출동한다. 특히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골퍼로 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성재(25)까지 출격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여주 페리클립(파72)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이 격전의 장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제주출신은 임성재를 포함해 고군택

(23), 현정협(39), 하중훈(32), 김승현(26), 한재민(23), 최승빈(22), 김현욱(19) 등 모두 8명이다. 근래들어 가장 많은 규모다. 올 시즌 개막전에는 임성재가 없었기 때문에 7명이 출전했다.

임성재가 KPGA 코리아투어에 출전하는 것은 2019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약 3년 7개월만이다. 당시 임성재는 정상에 오르며 국내 대회 첫 승을 기록했다. 임성재는 2022-2023 시즌 PGA투어에

17개 대회에 출전해 TOP10 7회 진입 포함 16개 대회 컷통과 등의 활약으로 현재 펌팩스컵 랭킹 19위(923P)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랭킹은 18위다.

고군택은 올 시즌 KPGA 개막전인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선두권 대열에 합류했다.

제주출신 중 만형인 현정협은 2002년 국가대표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8년 KPGA투어 A+라이프 호담 제주오픈 with MTN 3위와 KPGA투어 대상스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2위 등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신설 대회로 고향에서 열린 '골프존 오픈'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한 최승빈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하중훈과 역시 국가대표 출신인 한재민도 풍부한 경기경험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KPGA 코리아투어 출전권을 따낸 김승현은 꾸준히 대회에 얼굴을 내밀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추천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김현욱(19)은 유일한 아마추어이지만 매경오픈에서 1라운드 4언더파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국대' 이름값을 하기 시작해 관심의 대상이다. 조상윤기자

오늘 K리그1 2023 12R '유나이티드' 더비 리그 4연승 토대로 선두권 도약 준비 마쳐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 연승 행진의 시동을 건다.

제주는 10일 오후 7시30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인천과 격돌한다.

시즌 초반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제주는 1라운드 로빈(1~11R)에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썼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홈 10경기 무승(3무 7패)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6일 포항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265일 만에 홈에서 승리를 챙겼다.

제주는 최근 3연승을 질주하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제주는 5승 2무 4패(승점 17)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서울(승점 20점)부터 4위 대전(승점 18점)까지 모두 사정권에 들어왔다. 인천까지 제압하고 홈 2연승 및 리그 4연승을 달린다면 제주발

돌풍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상대는 까다로운 인천이다. 최근 제주는 인천에게 3차례 달미를 잡았다. 지난 3월 12일 인천 원정에서도 0-1로 패했다. 지난 시즌까지 제주에서 활약했던 제르소 뿐만 아니라 오반석, 권한진, 이동수, 여름, 김준엽 등 다수의 제주 출신 선수들이 뛰고 있다. 전임 감독이었던 조성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어 이번에도 쉽지 않은 승부가 예고된다.

이에 제주는 경계심을 낮추지 않으며 전력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최근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플레이어 오브 라운드'에 선정된 김봉수가 공수에 걸쳐 맹활약을 펼치며 최영준, 구자철 등 베테랑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특히 김봉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우상혁(27·용인시청)이 9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높이뛰기 남자대학·일반부 결승에서 2m32를 1차시기에 성공하고 있다. 이날 우상혁은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기록을 넘어서며 기록 기준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다.

우상혁, 세계선수권 기준기록 통과

2m32로 개인 최고 기록 경신... 시즌 세계 3위

우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처음 치른 국내대회에서 2m32를 뛰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사실상 손에 넣었다.

우상혁은 9일 경상북도 예천 스타디움에서 열린 KBS배 전국육상 경기대회 남자 대학·일반부 높이뛰기에 출전해 우승했다.

첫 번째 점프에서 2m16을 넘어 1위를 확정했고, 두 번째 점프에서는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인 2m32를 넘었다.

이날 2위를 차지한 박순호(영주시청)의 기록은 2m10이었다.

우상혁은 대부분의 선수가 경기를 마친 뒤, 자신의 성 'WOO'와 태극기를 새긴 스파이크를 신고서

첫 도약을 준비했다.

2m16에 도전한 선수는 우상혁과 박순호 두 명뿐이었다.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바를 넘었고, 박순호는 2m16의 벽에 막혀 경기를 끝냈다.

우승을 확정된 우상혁은 바를 2m32로 높였다.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32를 넘고, 포효했다.

이번 대회 목표를 이룬 우상혁은 기본 좋게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우상혁은 "(시차 탓에) 한 시간

자고 경기장에 왔다.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바가 높아 보이지 않았다"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까지 통과해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올해 실의 경기에서 2m32 이상을 뛴 점퍼는 해리슨, 조엘 바덴(호주·이상 2m33), 우상혁 등 단 3명뿐이다.

우상혁은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을 2m27에서 2m32로 끌어 올리며, 기록 기준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나군안, 생애 첫 월간 MVP 선정

'포수 나중덕'서 에이스로

포수에서 투수로 변신한 나군안(사진·롯데)이 생애 처음으로 월간 MVP에 뽑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나군안이 4월 한달 간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선보이며 4월 월간 MVP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나군안은 대형 포수 유망주로 기대를 받으며 2017년 KBO 리그에 데뷔했다. 그러나 타자로 빛을 발하지 못했고, 2020년 퓨처스리그에서 투수로 변신을 시작했다. 그 무렵 이름도 나중덕에서 나군안으로 바꾸며 선수 인생을 건 도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나군안은 2021년 5월 5일 사직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익숙했던 포수 포지션을 떠나 KBO 리그에서 투수로 처음 마운



드에 올랐다.

2021시즌 총 23경기(선발 7경기)에 등판해 1승 2패 평균자책점 6.41의 성적을 기록하며 투수 커리어를 시작했다. 2022시즌은 직전 시즌보다 많은 39경기(선발 13경기)에 등판해 3승 8패 평균자책점 3.98을 기록하며 발전한 모습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투수 전향 3년 차를 맞은 2023시즌에는 시작과 함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KBO 리그 정상급 투수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생애 첫 월간 MVP를 차지하게 됐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이슈 픽 앤드 콕(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불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불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굿아침 굿아침(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하늘의 인연(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2023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스페셜 11:45 프린세스 비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애나갤러리 11:30 내비의 모험 11:45 헬로카봇 13 점	8:00 딩동댕 유치원 8:20 웃기는 처음 영어 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EBS 평생학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7:25 뽀롱뽀롱 뽀로로 18:10 뽀롱뽀롱 뽀로로 19:20 고향민국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아미다 미야마 존재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열린채널 14:50 어린이 동물터비 15:20 팔도방송 16:00 시사건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활의 발견 스페셜 12:25 홍길동전(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15:30 TV 유치원 16:00 스튜디오 K(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도깨비(재)·보물선의 전설 17: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17:30 팔면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를 더	12:00 12 MBC 뉴스 12:25 MBC 네트워킹특선 13:25 뽀롱뽀롱 뽀로로 스페셜 13:55 2시 뉴스 워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 MBC 뉴스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재) 14:00 네모세모(재) 15:00 최정우를 능부들 청년보스 15:40 나는 문화생활 16:00 와이즈 정보소 알고 보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편먹고 공치리5 승부사들(재)	KCTV 8:0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9:00 KCTV 뉴스 9:30 여왕의 레시피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탐나는 보이스 13:10 KCTV 다큐스페셜 14:0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15:20 제주의 가치 재발견 시즌 3 17:50 on 파퓰 in 제주 18:30 KCTV 스페셜 19:00 KCTV 뉴스7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연단 제주 20:30 굿아침 굿아침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세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여자 20:30 목요일의 문제아들 21:50 과학수사대 소모킹 건 23:00 9층 시사극 23:45 세상의 모든 디큐	18:05 다큐 M 19:05 하늘의 인연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가정의 달 특집 일타강사 22:30 리디오스타	18:50 생방송 투데이 9:0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편먹고 공치리5 승부사들	제주CBS FM 93.3MHz 90.3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섬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지단(組長) 직역명학 원장
경기대 평교실 교수(010-5233-6136)

36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48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0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72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37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소식이 찾아온다. 49년 목표가 있으면 추진, 직장인은 변동수가 생긴다. 61년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있다. 73년 취업, 직장에 발간 소식 있으면, 미혼여성은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 85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인이 많아진다.

38년 가정사 문제로 불화 또는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유지. 50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2년 직장이나 거래처에서의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해 놀람이 있다. 74년 뜻하지 않은 희식이나 이성교제에 행운이 따른다. 86년 취업이나 진학의 기회가 있다. 최대한 활용하라.

39년 과거에 진척하면 우울해지고 권태가 온다. 51년 문서 관련 업무는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63년 계약건은 원활하게 성사되고, 자녀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75년 새로운 계획(창업)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87년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미래 직업에 반영하는 일을 구상할 것.

40년 여유와 차분함이 필요하고 안정할 시기이다. 52년 하는 일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약속은 보류 된다. 64년 상호협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논의하라. 76년 모험 또는 시기, 절투가 생기니 잠깐하는 일은 자제. 88년 새로운 변화나 미취업자는 취업, 직장인이 길하다.

41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면 좋다. 53년 직장이나 사업장의 매출 이익과 생산 증대되며 상사로 부터 인정을 받는다. 65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이 필요할 때. 77년 이동, 변동이 따르고 분주하다. 89년 자존심을 앞세우면 이성교제에 불리.

42년 부부간에 시댁,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격정이 생긴다. 54년 문서이동, 이사, 매매 등에서는 계약이 성사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하다. 78년 취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90년 행복의 시작은 건강에서 온다.

4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5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 67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79년 친구, 동료의 만남이 있으며, 애정에 희소식이 있다. 91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련된 일로 구설수가 고인이 조심해야.

4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대화를 할 것. 56년 아사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생긴다. 68년 최선을 다한 일에 결과가 있고, 나를 인정받게 해준다. 80년 부모나 윗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일이 지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92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다.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대인관계를 적극 활용하라. 57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지갑 조심. 69년 얼굴에 손을 댄 일이 있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니 지출보다 저축이 필요하다. 81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뵙는 것이 좋다. 93년 문서 이동수가 있고 건강이 약해진다.

46년 도움에 의한 일자리나 직업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 58년 남의 일에 간섭하다 내가 일을 대신 해주는 형국. 70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약속이 생기면 중지하라. 82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를 사게 되니 행동을 조심하게 하라. 95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잘 마무리 해야 한다.

47년 투자 시에는 신중함과 관찰력이 필요하다. 59년 언쟁이나 불화가 생기니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71년 타인의 배려가 간섭이나 억압으로 느낄 수 있다. 여유와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83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미움을 사게 되니 행동은 조심하게 하라. 95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잘 마무리 해야 한다.